민족문화연구 제84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84호에는 2종의 기획특집논문 6편, 일반 논문 14편을 포함하여 총 20편의 논문과 해제 1편이 수록되었다. 일반 원고로 수록된 논문은 문학이 7편, 역사학이 5편, 민속학이 1편, 종교학 1편이다. 문학의 경우 고전시가, 구비문학, 한문학, 현대 시・소설・희곡 등으로, 역사학에서는 조선후기사, 근대사, 현대사 등이 고루 게재되었고 각각은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기획특집으로는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의 학술적 가치(2)"와 "삼일운동과 지역"이 수록되었는데, 기획특집 논문 6편에 대한 소개는 '특집의 말'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반 논문과 해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김태우의 "고문헌에 나타난 천문 현상에 따른 풍흉과 길흉 예측—해, 달, 별을 통한 예측과 민속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에서는 세시기, 개인 문집, 농서, 유서류 등에서 해와 달, 별 등의 천문 현상을 보고 풍흉과 길흉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피고 있다. 아울러 달점 보기나 좀생이별 보기 등 달이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민속의 상당 부분이 문헌에서 유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속 연구에서 이러한 관점에 대해 유념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하정은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 사이—동계 조귀명의 역사 소재 산문 연구—"에서 조귀명의 문학에서 드러나는 섬세한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소식에 대한 특별한 지향을 보이면서 그의 문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였다는 점, 유교의 이념 윤리 대신에 현실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일반 의작과는 다른 관찰자의 시점을 취하여 역사 기록에 틈입한 서사의 확장을 이룩하였다는 점, 역사에 존재할 수 없는 장면을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연출하되, 통념이 된 주제를 자신만의 논리 구조를 통해 제시하였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박현순은 "18세기 경화사족 김용겸의 삶과 교유"에서 18세기 후반의 청년

들이 왜 김용겸의 주변에 모여들었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그의 삶과 교유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노론 낙론계에 소속되어 있던 김용겸은 기성의 학계에 피로감을 느낀 청년들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장유와 귀천을 가리지 않는 개방적인 태도로 젊은이들과 박학을 매개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스스로의 인식을 확장해 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네트워크의 존재는 18세기 후반 한양지식인계의 주요한 속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분석하였다.

중국 해양대의 임명걸은 "영재 유득공의 해양(해양국가)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유득공의 해양·해외에 대한 인식을 통해 당시 조선지식인의 해양 및 해양국가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밝혔다. 북학사상의 소유자였던 유득공은 연행록 열하기행시주(1790)와 연대재유록(1801), 문집 고운당필기, 영재집 등에서 아시아와 서양의 해양국가에 대해 지리, 풍속, 물산은 물론 학예의 수준과 학문적 경향까지 파악하고 있었으며, 서양 해양세력이 동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호는 "정약용 향수론의 추이와 그 함의"에서 유교 경전에서 전하는 향수제와 이에 대한 선유의 일반적 독법, 이를 비판하며 제기된 다산의 향수론, 그리고 그 만년에까지의 변화과정을 계기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특히 주례에 제시된 향과 수의 성격과 위치, 정현의 독법 등을 분석하고 향을 비농업지대로 보고 위치를 도성 내부로 비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다산의 이러한 향수론이 이후 도성개혁안, 교선개혁안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부연의 "다산 정약용의 '천리(天理)' 관념"에서는 다산의 '천리'의 관념이 심성론과 공부론, 인간 관계론에서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갖는지에 대해 궁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약용의 사상 속에서 천리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나 마음의 본체라는 지위를 상실하였지만 궁극 실재인 상제 아래에서 최고의 도덕 원칙이자 도덕적 인륜 질서의 근거로서 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리'의 문제에 주목하여 다산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논의이다.

홍나래는 "조선후기 설화 속 하위계층의 주체화 문제 고찰—증여를 통한

관계의 재구성과 도덕적 정당성 방식—"에서 조선후기 이야기 〈곰과 싸운 노귀찬〉, 〈양반 행세한 최승선〉, 〈금비녀를 찾아준 선비〉를 중심으로 하위계층 등장인물들이 양반들과 맺는 새로운 관계 정립의 문제에 주목하여, 이들의 도덕적 정체성과 인정, 신분 윤리에 대한 저항과 균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 하위계층 인물들은 폭력이나 선물, 축복을 통해 강렬하고 위협적으로 기존 신분질서와 규범을 흔들면서 기득권에 주체로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당대 하위계층이 기존 사회의 윤리·규범을 따르면서도 새로이 자신의 도덕적 위상을 세우며 힘 있는 존재로 자기 삶을 전환시키길 강렬히 지향했다고 논증하고 있다.

고순희는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은 1910년대 가사문학의 전개 양상과 가사문학사적 의의"에서 1910년대에 창작된 가사가 당대의 역사·사회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장르로 기능했다는 점, 당대인의 인식과 삶을 반영하는 다큐멘터리로 기능한다는 점 등 그 의의를 밝히고, 이들 가사가 역사·사회 현실에 대응하여 창작하는 가사문학의 전통을 극대화하여 발현함으로써 일제강점기가 계속될 때까지 그 전통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 등에서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술국치의 충격을 담아 창작된 당시 가사문학이 전개된 양상과 그 의의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어 일독할 가치가 높은 논의이다.

박보영의 "3.1운동기 총독부기관지 『서울프레스』의 국제사회 대응 양상—*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Articles Reprinted from the "Seoul Press"*(1919.5)를 중심으로—"에서는 동아시아 영어 매체 네트워크에 수개월에 걸쳐 실렸던 3.1운동과 그에 대한 서울프레스의 발언 및 유포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3.1운동에 대처하는 조선총독부의 논리와 국제사회 대응 방식을 규명하고자 한 논의이다. 총독부 기관지 『서울프레스』가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한 구성원으로서 발언을 하고, 동아시아 영어 매체 네트워크에서 쏟아내는 갖가지 배일(排日) 여론을 방어해내는 대항담론의 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3.1운동세력과 서양인 선교사를 분리하여, 운동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전략을 펼쳤다고 분석하였다. 당대 국내외

여론 동향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영은 “1920년대 조선과 직역의 의미—「The exploits of Elaine]의 번역과정을 중심으로—”를 통해 김동성이 1921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번역소설 「엘렌의 功」의 번역과정을 고찰하여 일본을 거치지 않은 서구 근대의 수용 과정을 살피고 있다. 김동성의 직역소설이 서구 근대문학, 즉 서구의 근대를 일본이라는 매개 없이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곧 조선도 자율적으로 서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인칭 시점을 유지하던 직역의 태도를 후반부에 버리는 것에 대해 당시 조선의 열악한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해석함으로써 번역 문학의 당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종민의 “1930년대 『동아일보』의 인적 구성과 변동”은 1930년대 『동아일보』에서 사설을 직접 집필했던 필진 및 논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편집진의 중층성을 밝히기 위해 당시 인적 구성과 그 변동 양상을 살핀 논의이다. 동아일보의 내부 인적 구성은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중앙학교, 와세다를 중심으로 한 학맥을 공유하는 이들이 중심이 된 반면 사설의 필진·편집진의 경우 자본·경영진과는 주된 활동단체나 사상적 입장을 달리하는 인물들이 포함되었음을 밝혀내었다. 이들의 공존은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한 인적 변동 이후에도 유지되다가 중일전쟁과 더불어 강화된 일제의 전시 파시즘 체제 아래에서 이들의 사상적 입장 차이는 체제순응적 전쟁협력 논리로 합류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근대사에서 언론을 주도한 인물들의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성환은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유토피아 충동과 노스탤지어 연구—1930년대 후반기의 백석과 이용악 시를 중심으로—”에서 백석과 이용악의 시에 나타난 고향은 이들 시인이 가진, 상실된 고향에 대한 정념 곧 노스탤지어에 기인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발현 과정을 살피고 있다. 특히 백석의 시에서는 복원적 노스탤지어와 ‘세상’으로부터 ‘고향’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이용악의 시에서는 성찰적 노스탤지어와 ‘고향’에서 ‘빛나는 영토’로 나아가기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광욱의 “중립불가능의 시대와 회색의 좌표—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지리산〉에 나타난 지식의 표상으로 중심으로—”는 두 작품에 나타난 이병주의 문제의식을 밝히고자 한 논의이다. 주동인물의 성향과 삶에 대한 태도, 이를 통해 작가가 내세우는 중립주의의 특징과 그것이 형상화되는 과정, 인물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시대적 특징에 천착함으로써 중립주의의 실패에 이르는 과정을 논증하고 있다.

이하나의 “냉정과 경쟁의 모방—북한 전쟁첩보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에 나타난 냉전/분단의 상동성—”은 북한 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이 가지는 시대적·서사적 맥락과 더불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인식과 재현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냉전이 문화적 층위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 논의이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제작된 다부작 예술영화로서, 남한에서 벌어지는 북미 간 첩보전을 소재로 하는데, 당시 전장 모습과 남한의 모습을 세밀히 묘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리얼리티와 재미를 살리면서도 북한과 미국의 상이한 시선을 통해 냉전의 기원을 재해석하고 한국전쟁과 종전 협정 과정을 바라보고 있다고 평하였다. 냉전 시대 북한의 시각에서 해석한 미국과 남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국진은 “『낙하생고』 해제”에서 『낙하생고』가 이학규가 해배된 이후 1824년부터 1833년까지 활동하면서 창작한 시와 문 등을 각각의 독립된 문집명으로 나누고 2책으로 구분하여 수록한 책으로 소개하고 편저자의 생애사를 정리한 뒤 책의 구성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학규의 문집과 선집의 이본 현황을 정리하면서 『낙하생고』는 이학규가 해배 이후부터 세상을 떠나기 2년 전까지의 삶의 궤적과 문학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지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학규가 문학적 교유 관계를 맺은 인물, 해배 이후 불우한 삶에 대한 내면의식과 영남지역 민중의 실상을 반영한 시세계, 학문 성향 등에 대해 소상히 살필 수 있는 자료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문화연구』 제84호는 투고 논문 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학문적 쟁점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기획의 기능을 강화하여

두 종류의 기획특집을 수록하였다. 부디 관심 있는 연구자들께 널리 읽혀 후속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족문화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를 지지하며 훌륭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투고되기를 바란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